농진청, 2022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50개 작목 평균 소득률 전년과 비슷한 48.2% 기록 · 농자재비 인상으로 50작목 중 44개 작목 경영비 증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2년도에 생산된 50개 농산물의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10아르) 소득은 식량작물 7%, 시설과수(포도) 6% 감소했으나, 화훼(시설장미) 72%, 노지채소 26%, 시설채소 17%, 특용·약용 11%, 노지과수 3% 등으로 증가해 평균 소득률은 48.2%(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를 기록했다.

소득이 높은 작목은 촉성오이, 시설가지, 시설딸기 등 시설작목이었다. 10아르(1,000㎡)당 소득을 보면, 촉성오이는 1,803만원, 시설가지는 1,293만원, 시설딸기는 1,270만원으로 조사됐다. 노지 작목 중 노지포도는 690만원, 블루베리는 519만원, 노지생강은 496만원 등으로 소득이 높았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노지쪽파 소득이 지속해서 하락했고, 들깨, 노지감귤 및 고구마 소득이 하락 추세이다. 농가 경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지쪽파는 가격 하락, 노지감귤은 수확량 감소, 들깨와 고구마는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로 소득이 줄었다.

전년 대비 소득증가 작목은 36개, 소득 감소 작목은 14개로 분석됐다.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작목은 노지당근(318%), 노지생강(193%), 시설장미(72%) 등 19개였다. 상위 세 작목은 2021년도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202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었는데,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이 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반면,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목은 고구마(△33%), 노지감귤(△27%), 노지쪽파(△25%), 들깨(△23%) 등 4개다. 농가 경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품종 및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농산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비용 절감 등 보다 적극적인 농업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2023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성료

전북형 선 투자 연계 매칭융자지원 등 창업생태계 성장 발판 마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북중기청, 전북도, 전주시가 공동주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표 주관해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던 '2023년 스타트업 전북창업대전'이 15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전북중기청, 전북도, 전주시가 공동주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표 주관해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던 '2023년 스타트업 전북창업대전'이 15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8번째로 개최된 스타트업 전북창업대전은 해를 거듭하며, 투자IR, 라이브커머스, 창업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기관 또한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자사 등 전국 55개기관으로 확대되며 전북 지역 대표 창업축제로 발전하였다.

이번 창업대전에서는 40여개 우수창업기업 제품전시, 7개기업 라이브커머스 등 창업기업들이 직접참여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예비창업자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창업 성공·실패사례 등 특별강연 및 토크콘서트도 진행하여 창업 저변 확대를 기했다. 특히, 이차전지·콘텐츠·식품 등 분야별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매칭하기 위한 분야별 맞춤IR이 진행되어 11건 14.5억원의 투자협약을 맺고 사후 추가 협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 사업 협약을 통하여 전북지역의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영위와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였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윤여봉 원장, 이차전지 제조기업 '코센' 방문

'기업속으로 프로젝트' 일환… 기업애로 해소 위한 지원방안 모색의 자리 마련

윤여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 15일 '기업속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부안군 농공단지에 위치한 강소기업 ㈜코센을 방문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기업속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부안군 농공단지에 위치한 강소기업 ㈜코센을 지난 15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진원의 '기업속으로 프로젝트'는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추진의 일환으로 기관장이 매주 도내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코센은 지난 1974년 '동신금속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1990년 코스닥 상장사로 등록되었고, 창립 후 46년 이상을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와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했다. 지난 8월 신규사업으로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고, 9월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전문기업 엑스알비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이차전지 사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는 리튬배터리(LIB)의 짧은 Life cycle로서, 화재/폭발 위험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되어, 10여년 간의 실증 및 기술 검증을 거쳐 최근 태동기를 맞이 하고 있는 제품이다.

㈜코센의 부안공장을 방문한 윤여봉 원장은 이차전지 제조공장이 도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를 수렴하고, 연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했다.

윤 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이차전지 사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자금, 전문인력 등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이차전지 기업의 정책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추석맞이 식품안전 특별 점검 실시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주관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지난 15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객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최한호)은 지난 15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객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전북검사국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특별점검은 최한호 검사국장이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산물 판매대를 둘러보고 식품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

국민체감형 정책추진에 앞장 데이터 기반 혁신 행정 선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4일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데이터로 열어가는 스마트한 행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혁신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기관을 찾아 시상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30년 이상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지자체 등 협업 기관의 정책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공유해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주시·경기도 등 주민 이동이 잦은 지역의 버스노선 확대·개편 및 교통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창원시·양주시 등 인구정책·근로자 관련 현황 등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 등에 기여했으며, 이외에도 전북 지역기업 16개를 선정해 벤처 육성 및 창업을 지원했다.

지난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서 조정훈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부장(왼쪽)이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오른쪽)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연금공단이 지식 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익 제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개인정보 보호주간(9월 둘째주)을 맞아 지난 13일 전주역 일대서 개인정보보호 합동 캠페인에 나섰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이 개인정보 보호주간(9월 둘째주)을 맞아 지난 13일 전주역 일대에서 개인정보보호 합동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홍보 앞장서겠습니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건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담은 홍보물품 전달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려 지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기기자